

유럽교우회보

제 49 호
2013.11.

발행인: 양해경
편집인: 조인학

www.kuaa.eu



Korea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Europe

유럽총연합회 교우회보

KUAA EUROPE

유럽 아프리카 중동 중앙아시아 교우의 마음의 고향

영국

정기 골프 고연전

영국교우회(회장 한충석, 무역 84)는 연대교우들과 함께 2013년 정기 골프 고연전 행사를 10월 12일(토)에 런던 남서쪽에 위치한 Silvermere Golf Club에서 개최하였다.

그 어느때 보다도 많은 교우들(고대 27명, 연대 24명 등 총 51명)이 참가한 이번 정기 골프 고연전에서는 공식 시합조 10개조와 친선조 3개조 등 총 13개조가 친목과 화합의 시간을 보냈다.

진검승부를 펼친 시합조 10개조의 결과는 3승 2무 5패로 마무리 되어 승리는 양보했



지만 부상과 감기, 몸살 속에서도 모든 교우들이 강한 투혼으로 고대인의 기상을 한껏 발휘하였다.

고연전을 마친 뒤 만찬행사는 뉴몰든의 한식당에서 학교별로 진행이 되었으나, 양교의 회장단이 상대학교의 저녁 행사 장소로 방문하여 서로를 격려하고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 양교 교우간의 우의를 다졌다.

특히 이날 고연전 경기에는 직접 참석을 하지 못했지만 저녁행사 장소로 신입교우인 남궁준(법학 98, UCL박사과정), 최인선(영문 99,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참석하여 교우들과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고, 앞으로 교우회를 위해 열심히 활동하겠다는 각오를 보여주어 참석 교우들의 힘차 박수와 함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교환학생과의 만남

영국교우회는 매년 영국의 대학으로 교환학생으로 오는 모교 재학생 후배들과의 만남 행사를 이어오는 전통이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10월 18일(금) 뉴몰든에 위치한 한식당에서 King's College London(1명), Royal Holloway University of London(7

명),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University of London(SOAS)(9명) 등 총 17명의 재학생 후배들과 함께 '교환학생과의 만남' 행사를 진행하며 즐거운 저녁시간을 보냈다.

학생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교우회에서는 각 학교와 만찬 장소 간의 이동을 위한 차량을 대절하였고, 학생들은 간만에

맛보는 한식에 행복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민족 고대~~~'를 외치며 시작하는 후배들의 자기소개 시간을 거쳐 교우회 선배님들의 덕담을 듣고, 마지막에는 어렵게 구한 막걸리 사발을 돌리며 선후배들간 많은 대화를 가졌다.

밤 늦은 시간 인생에 잊지 못할 추억을 얻었으며 고대에 들어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다는 재학생 후배들의 아쉬운 모습을 뒤로 하고 행사를 마무리 하였다.

이날도 신입교우인 서효교(불문 99, CJ푸드유폴), 임형선(영문 99, Burberry Senior Manager)교우가 참석하여 새롭게 교우회에 합류하여 인사를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터키

시니어 만찬 모임 가져

지난 10월 8일 이스탄불 최상급 호텔인 Four Season Bosphorus에서 터키 교우회(회장 김성렬 독문 73) 시니어 만찬 모임을 갖었다.

참석자는 김성렬 회장을 비롯하여 장원신(경제 78, 현대자동차 터키 법인 CEO) 조충근(법학 81, LG전자 터키법인 CEO), 도중섭(기계 81, SK HOLDING 상무) 4명 교우와 각 가족이 함께 하였다.

장원신 교우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이번 모임에서 교우회 발전을 위한 토의와 아울러 교우 상호 간 친선을 도모 하였다.

이번 모임에서 결의된 사항은 "2013년 송년 모임"을 김성렬 교우회장 집에서 11월 16일 거행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홍현택(금속공학 87)총무에게 연락 하여 즉각 공지토록 하였다.

가족 포함 약 30명 정도 참석이 예상 되어 유사 이래 최대의 송년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탈리아

교우가족 가을 산행 가져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한창 무르익어가던 9월 마지막 주 주말, 이탈리아교우회(회장 여종열, 일본 83)교우들은 Lecco로 가을산행을 다녀왔다.

지난해, 교우들이 맨몸으로 알프스를 정복하려는 지나친 고대 정신으로 길을 잃었던 쓰라린 경험을 되새기며 올해에는 비교적 수월한 코스를 택했다.

여종열 회장의 가이드와 격려 속에 어린 자녀분들과 평소 운동 부족으로 산행이 버겁지 않을까 걱정스러웠던 참가자들조차 큰 어려움 없이 완주할 수 있었다.

한국의 단풍에는 비할수 없지만 어느덧 붉게 물들어 있는 가을의 산에서 지천에 떨어져있는 호두를 주우며 이태리의 아름다운 자연에 감사하는 마음이 절로 났던 주말 산행이었다.



프랑스

골프 고연전 개최

9월 28일 파리 인근 Bethemont 골프장에서 열린 하반기 골프 고연전에는 고대 15명, 연대 10명이 참가하여 열띤 승부를 벌였다. 그러나 경기 결과는 고대가 아깝게 석패. 프랑스교우회(회장 신현식, 기계 79)측은 신규 부임 주제원 숫자가 증가하여 수적으로

우세하였으나, 연대측에 프로급 실력을 갖춘 2, 3명의 파리정착 교우로 아쉽게도 종합 성적에서 연대에 밀리고 말았다.

운동하기에 최적인 날씨 속에 고대 75학번부터 92학번, 연대 70학번부터 99학번까지 30여년의 세월을 넘어 한 팀을 이루고 사진 촬영 후 운동경기 시작하였으며, 경기가 끝난 후 양교 교우들은 골프장 레스토랑으로 이동하여 우의를 다졌다.

시원한 맥주, 와인을 곁들인 점심 식사와 함께 하는 친선의 만남은 언제나 느끼는 양교 모임의 편안함과 덕담과 우스개를 나누는 화기에애한 분위기 등 비록 이번 고연 골프대회에서는 아깝게도 패하였지만, 친목을 나누는데 부족함이 없는 시간이었다.

한편, 프랑스 교우들은 매월 셋째 주 토요일 골프모임 '호골회'를 활성화하여 내년 상반기 골프 고연전에서의 필승을 다짐하고 해산하였다.



학생교우들과의 만남

프랑스 교우회 회장단 등 총 18명의 교우가 참석하였다.

프랑스 교우회는 9월 23일 파리에 거주하는 학생교우를 초청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에는 파리 10대학에서 철학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이재훈(철학 96) 교우를 비롯하여 ESCP 대학에서 교환학생으로 공부하고 있는 신술위(경영 10) 교우 등 학생교우 13명과

이춘건(불문 74) 교우와 신현식 프랑스 교우회장은 학생교우들의 파리생활과 애로사항 등을 듣고 격려의 말을 전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한편, 파리에서 만트레블 여행사와 사계절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이춘건 교우는 매년 2회 학생교우초청행사를 주관하고 있다.



독일

정기고연전 무승부

독일교우회(회장 정지영, 산공 77)와 연세대독일동문회는 9월 28일 프랑크푸르트 인근 오버우어젤 구장에서 2013년 정기고연전을 가졌다.

정규경기 4종목(족구, 여자발야구, 축구, 이어달리기), 번외경기 4종목(손볼프, 투호, 닭싸움, 피구) 등 총 8경기가 진행된 이번 정기전에서는 정규경기 2승 2패(축구, 족구 승), 번외경기 2승 2패(투호, 피구 승) 종합전적 4승 4패로 우열

을 가리지 못한 채 무승부로 2013년 독일 정기 고연전을 마쳤다.

이번 정기전에서는 매 경기 손에 땀을 쥐는 장면이 연출되어, 선수뿐만 아니라 응원하는 교우와 가족들 모두 한순간도 긴장을 놓지 못하는 명승부를 펼쳤다.

그러나 축구 경기는 시종일관 압도적인 경기를 펼쳐 4:0이라는 큰 차로 승리를 거둬 지난해 충격적인 패배를 만회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여자발야구는 지난 10년간 한 번도 패하지 않은 무패신화를 이어왔는데, 이번 정기전에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접전



을 펼쳤으나 아쉽게도 연대의 승리로 돌아가 연대측에 최초의 승리를 안겨주었다.

경기 후 양교 참가자들은 만찬을 함께 나누며 우의를 다졌고, 푸짐하게 준비된 부상을 복권

추첨으로 나누어 갖고, 내년에도 다시 만나 자웅을 겨룰 것을 약속하고 아쉬운 작별을 하였다.

모교 정기 고연전

2013 정기고연전 2승 1무 2패

9월 27일(금)과 28일(토) 양일간 열린 2013년 정기고연전은 무승부로 끝났다.

2승 1무 2패. 농구와 럭비 승리, 아이스하키 무승부, 야구와 축구 패. 2011년과 2012년 2년 연속 정기전 종합우승의 상승세를 이어 3연승에 도전했으나 아쉽게 무산됐다.

이로써 5개 종목으로 정기전이 진행된 1965년 이후 종합전적은 16승 9무 18패를 기록하게 됐다. 내년부터 3연승을 이어가면, 정기전 사상 첫 3연승과 종합전적에서 앞서가는 두배의 기쁨이 실현될 것이다. 교우회는 올 정기고연전을 앞

두고 자원봉사단을 구성했다. 교우들의 단체 관람을 돕고 재학생들과 함께 즐기는 고연전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30명 이상 단체 관람을 신청한 교우들에게는 운동장에 미리 좌석을 마련하고 깃발을 준비해 두었다.

그 결과 둘째 날 잠실경기장에는 5500명 정도의 교우들이 찾아와 열띤 응원을 펼치며 교우들의 뜨거운 응원이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정기전 후 안암동 참살이길 일대에서 열리는 고대 선배들의 무료주점은 올해도 후배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안겨줬다.



모교단과대학 탐방

사범대학

글로벌 시대의 맞춤 교육전문가 육성의 산실



모교 사범대학은 1973년에 3개학과(교육학과, 체육교육과, 가정교육과)로 시작하여, 현재 9개학과(교육학과, 체육교육과, 가정교육과, 수학교육과,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지리교육과, 역사교육과, 컴퓨터교육과)와 2개의 연계전공(공통사회, 패션디자인 머천다이징)으로 성장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행하는 전국 사범대학 평가에서 계속 최우수 평가를 받고 있

는 재학생 1800여명과 교수 76명으로 구성된 명실공히 최고의 사범대학이다.

이제는 최고의 중등교사 양성 기관에서 안주하지 않고, 글로벌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력과 국제 경쟁력을 갖춘 교육전문가를 배출하기 위한 변신의 노력을 피하고 있다.

국제화 교육 프로그램

사범대학은 끊임없이 변화하

는 21세기의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글로벌 시대를 이끌어 갈 교사 양성을 위해 학생들에게 외국의 다양한 교육 시스템을 접하고 외국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국제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 유타주, 버지니아주, 하와이주, 영국, EU 등과의 교육실습 국제인턴십 프로그램, 미국 미주리대학교와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사범대학과

의 교육실습 교류, 한국 국제학교 교육실습 등의 다양한 국제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교원 교육은 교육대학원에서

창의성과 리더십을 함양하여 급변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교육전문가의 양성과 교육목적에 맞추어 현직교사를 재교육하기 위해 설립된 모교 교육대학원은 국내외 인지도와 평판도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모교 교육대학원은 1968년 개원 이래 45년 동안 85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명실상

부 전국 최고의 교육기관이다. 중등학교 교사 2급 자격증, 부전공교원자격증, 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증, 전문상담교사 2급자격증,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 등과 피인용도가 높은 우수한 석사학위 논문을 소지하고 교정을 나선 교우들은 교육행정, 문화, 체육, 경제·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활약상을 보여주고 있다.

사범대학은 앞으로도 시대적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고 시대를 선도하는 최고의 교육전문기관 및 교원양성기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10년에 완공된 윤초우선교육관은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최첨단 교육시설을 완비하고 있다.

교사가 된 제자, 학생들 이끌고 고대 투어하는 것 보면 너무 반가워요

이연숙 사범대학장 겸 교육대학원장



한 사람의 생애에서 가장 소중한 경험 중 하나는 평생을 따를 만한 스승을 만나는 일이다. 특히 감수성 예민한 청소년기에 만난 선생님들은 한 사람의 생애에 크나큰 영향을 끼친다.

1973년 창설 이래 지난 40년 동안 대한민국 중등 교육의 주춧돌을 놓아온 모교 사범대학의 이연숙(가정교육과

교수) 학장은 유럽총연합회 교우들에게 모교 사범대학을 소개한다.

“우리 사범대학은 그동안 한국 중등교육을 이끌어온 우수한 교원들을 배출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대의 변화에 걸맞게 국제 사회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교육전문가를 양성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대 출신 교사들은 전국 중등학교 곳곳에 포진해 있다. 교사에게 필요한 덕목은 전공 지식만이 아니다. 진정한 교육은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되는 품성을 가르치는 것이다.

고대문화는 다른 무엇보다 너무나없이 주변 사람을 친구로 만들고 이웃으로 만드는 문화이다. 모교의 품에서 자연스럽게 몸에 익힌 친화력은 교사의 길을 걷는 교우들에게 든든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

다. “가끔 중등학교 교사가 된 교우들이 학생들을 데리고 모교 캠퍼스 투어를 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학생들도 자신들의 선생님이 다닌 학교라서인지 더 큰 관심을 갖고 고대를 방문하는 것 같아요.”

사범대 출신 교사들은 자신들이 가르친 우수한 학생들을 고려대학교에 진학시키는 것으로 모교애를 실천한다.

사제 관계가 제자가 고대에 입학함으로써 이전 선후배 관계로 이어지는 것이다. 사범대학이 없는 연세대가 고려대학교를 부러워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이연숙 학장은 학생수가 줄어든 시대 변화에 따라, 사범대학의 모토를 중등교사 양성에서 교육전문가 양성으로 조정했다고 한다.

글로벌 시대에 걸맞게 학생들의 교생실습을 해외에서 실

시하는 프로그램도 진행 중이다. 사범대학 국제화 발전기금도 조성해 학생들에게 세계적 시야를 갖게 하는 데에 공을 들이고 있다.

“학생들의 반응은 대단히 좋습니다. 그런데 우수한 교원들이 국내에서 활동하지 않고 해외로 나가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교사로서의 뛰어난 자질을 가진 제자들이 해외로 나가는 것이 고민이라고 말하는 데서 이연숙 학장의 교육자로서의 면모를 확인하게 된다. 아마도 사범대학 교수들의 지혜가 발휘되어 국내 중등교육은 물론 해외 교육기관에서도 자기 역할을 담당할 교육전문가들이 길러질 것이다.

교생실습 이야기가 나온 참에 김연아(체교09) 선수에 대해 물어보았다.

“학과 교수님께 들어보니 김연아 선수는 교생실습도 성

실하게 준비해서 진행했고, 교육봉사 60시간도 졸업 전까지 충분히 이수할 것이라고 합니다.”

김연아 선수만이 아니다. 홍명보(체교87)교우는 학부 졸업 후 교육대학원에서 석사를 받았고 최고위과정도 이수했다. 그 외에도 한국 스포츠계 로고그램과 초중등학생들의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이다.

이연숙 학장은 사범대 본관과 신관, 2010년 개관한 윤초우선교육관을 사시사철 교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방학이면 교원 연수 프로그램과 초중등학생들의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이다.

40년 동안 한국 교육을 이끌어온 인재의 요람 모교 사범대학은 이제 시대의 변화에 맞닥춰 평생교육 기관이자 교육전문가 양성 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다.



남중석 (노어노문 84)

폴란드 남자들은 술을 좋아하고 잘 마시기로 유명합니다. 서방인이 폴란드 남자들이 얼마나 술을 잘 마시는지 확인하기 위해, 바에 가니, 폴란드 남자 3명이 보드카를 3, 4병을 이미 마시고 있었다.

서방인이 다가가 40도 짜리 보드카 1리터를 한 번에 마시는 사람에게 1천불을 주겠다고 하자, 폴란드 남자 2명은 못하겠다고 하고, 한사람이 슬며시 일어나서 잠깐 나갔다가 와서 자기가 해보겠다고 하니, 한 병을 원상하는 것을 보고, 서방인이 천불을 주면서, 왜 잠깐 나갔다고 묻자, 술을 좋아하지만, 한 병을 원상해 본적이 없어, 옆집에 가서 미리 한 병을 마셔보고 왔구나...

정미 잘고, 술을 좋아하고, 춤을 잘 추고, 우둔할 정도로 순박한 폴란드인을 풍자한 이야기입니다.

보드카의 원조 나라, 엉뚱해서 만국공통어인 에스페란토어를 만든 사람도 폴란드인이고, 2차대전에서 독일 함포기를 해독하여, 전쟁을 승리하게 한 공을 세운이도 폴란드인이고, 싸움을 잘해서 미국독립전쟁에 참여한 폴란드장군이 있으며, 과학분야에서는 여성 최초 노벨상을 두 번이나 받은 퀴리부인, 지동설을 주장한 코페르니쿠스, 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민주화투쟁의 상징인 바벨사, 피아노의 아버지, 쇼팽이 폴란드는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폴란드는 우리나라와 역사가 비슷하다고 합니다.

주변강대국(러시아, 독일, 스웨덴, 오스트리아)의 틈바구니 속에서 온갖 침략을 당해왔으며, 지도상에 폴란드라는 나라가 두 번이나 123년 동안 사라진 수난의 나라입니다.

2차대전 이전에 유럽에서 가장 많은 유대인이 살았던 곳이 폴란드입니다.

'우즈'라는 도시는 유대인들이 밀집하여 살았고, 일찍이 직물산업에 투자를 많이 해서, 가장 융성한 시기에는 영국, 맨체스터와 쌍벽을 이룰 정도로 산업이 발전하였고, 많은 분야에서 유대인들이 폴란드 경제에 끼친 영향이 컸습니다.

그러나 2차대전기간 동안에는 이로 인해 400만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를 포함한 수많은 수용소에서 인종

유럽총연합회는 유럽, 아프리카, 중동, 중앙아시아 교우들을 잇는 징검다리가 되고 이들 교우간의 교류를 위하여 "교우릴레이"를 벌이고 있다. 교우릴레이는 글의 내용에 구애받지 않으며 자유롭게 유럽총연합회 교우들에게 소식을 전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독일의 김인홍 교우, 영국의 임시창 교우, 프랑스의 신근수 교우, 러시아의 이세훈 교우, 스웨덴의 유명연 교우, 오스트리아의 김신자 교우, 터키의 김성렬 교우에 이어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의 민경준 교우, 쿠웨이트의 박정길 교우, 의정부지검 우남준 교우, 프랑스의 서정호 교우, 독일의 박동희 교우, 네덜란드의 김영연 교우, 프랑스 김재호교우, 우크라이나 박승현 교우, 전독일교우회장 오상덕 명예회원, 나이지리아의 정병훈 교우, 모교 교수 김세원 교우, 헝가리교우회 이상일교우, 행사부 국장인 정재근 교우, 페루 교우회 김태원 교우, 사우디아라비아의 백재현 교우, 카자흐스탄교우회 김상옥 교우에 이어 우즈베키스탄 남중석 교우, 벨기에 유승철 교우, 스페인의 권석주 교우, 스웨덴의 형민우 교우, 민석기 명예회원, 영국 교우회장 한충석 교우, 김중훈 명예회원, 프랑스교우회 지영성 교우, 스웨덴교우회 석갑인 교우, 독일 한운석 교우에 이어 폴란드 교우회 남중석 교우가 바톤을 이어 받았다.

교우릴레이(34)

폴란드에서 거의 꿈을 이루어갑니다

청소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연합국의 일원으로 뒤늦게 합류한 소련군도 폴란드에 많은 못된 짓을 저질렀고, 유명한 '카친숲의 학살'에는 수많은 폴란드지식인, 학자, 종교인들이 15,000명이 쓰러져갔으며, 2010년 그 행사에 참가하러 가던 폴란드대통령의 전용비행기가 추락하여, 대통령 부부를 포함하여, 80여명의 군장성, 정부관료 전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러시아와의 악연은 현재 진행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연가스, 원유를 제 공받아야만 하는 러시아, 동일로 더욱 강력해진 독일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폴란드의 모습에서 우리나라의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1988년 올림픽이후 불기 시작한 북방정책의 분위기 속에, 노문학과를 졸업하고 중합상사에 입사하여, 폴란드를 포함한 동구권에 한국 상품을 알리는 상품전시회에 참가하게 되어, 1989년, 25살의 나이에 폴란드에 첫발을 디게 되었습니다.

1989년 폴란드 첫 방문 시 유명처럼 폴란드여인을 만나 사랑하게 되어 수많은 에피소드를 만들었지만, 인연이 단지 않아 있고 지내다가 1994년부터 다시 폴란드출장을 다니기 시작하여 1997년 지사개설요원으로 정착하게 되면서 현재까지 바르샤바에서 16년째 살고 있습니다.

2003년에는 개인사업을 시작하여 중국과 한국에서 여성용, 남성용 의류 원단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음식점을 부업으로 시작하여 현재에는 전국에 3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부동산에도 투자하여 폴란드에 사는 한국인 중에서는 유일하게 의식주를 나름

대로 완벽하게 해결(?)하였습니다.

이미 폴란드에 살고 있는지 16년째, 제가 몸담고 있는 교민사회에서 다양한 봉사활동하면서 동시에 폴-한 양국간 교류증진에 기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인 골프모임을 창설하여 교민사회내 교류의 장을 만들었고, 폴-한 상공회의소 부회장으로 일하기도 하였고, 현재는 세계한인무역협회(OKTA) 바르샤바 지회장, 재유럽한인총연합회 부회장, 민주평통 해외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폴란드와 유럽의 다양한 분들과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활동을 하면서 유럽각국에 계시는 교우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OKTA모임으로 알게 된 터키 김성렬(독문 73) 선배님은 저를 보러 여름 휴가 때 폴란드에 놀러 오셨고, 평통모임으로 알게된 오스트리아 이종호(경영 58) 선배님은 새까만 후배를 위해 본인이 운영하시는 골프장에 초대하여 라운딩도 하고, 점심식사도 제공해 주셨습니다.

스웨덴에서 개최되는 OKTA 모임에 참가하기 전, 우연히 읽은 유럽교우회보 '교우릴레이'를 통해 스웨덴 형민우(간호 79) 교우가 계시는 것을 알게 되어 다짜고짜 연락을 드렸던, 얼굴도 모르고, 처음 본 후배를 위해 공항에까지 마중도 나오시고, 여름별장에 초대하여 정성스럽게 식사를 대접해주는 잊지 못할 추억을 갖게 되었습니다.

진정 고대인만이 느낄 수 있는 선후배간의 정을 체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어, 고대인만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선배님들을 존경합니다. 특히 유럽교우회보의 영향력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폴란드 교우회는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10여명의 교우들이, 현대차, LG전자, 삼성전자, 제일기획, 변호사, 회계사 등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골프모임 외에도, 매년 설에는 교우회장인 김영환(행정 73) 선배님 덕에서, 그리고 추석에는 우리 집에서, 교우가족들이 전부 모여서 화기애애한 시간을

같이 보냅니다. 배우자와 아이들까지 30~40명이 한 집에서 모여서 보내는 시간은 외부에서 하는 행사와는 다른, 진한 정을 더욱 느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난해인 2012년에는 교우회로부터 모범 교우회로 선정되는 영예도 누렸습니다.

저는 무역업에서, 식당업으로 사업을 늘려 나가고 있으며, 그리고 끊임없이 새로운 사업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바쁜 중에도 교민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2013년 1월에는 대통령표창을 받았습니다.

가족들과 건강하게 같이 살고 있으며, 큰 딸은 국제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여 서울대학교에 전액장학생으로 입학하였고, 재외동포재단 장학금도 매달 9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은 고1이지만, 역시 한국에 있는 대학을 갈 것이며, 군대에도 가겠다고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폴란드 교민사회에서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해외에서의 생활이 항상 순탄하기만 하겠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아무도 나의 사업을 대신해 줄수 없다는 절박함속에서도 나를 지탱해주는 힘은 무엇일까요?

자기가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고, 작은 일에도 성취감을 느끼면서 열심히 살고, 긍정적인 기운을 주변에 확산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高大人으로 당당하게 살고, 해외에 사는 교민으로 많은 바 임무를 다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저를 낳아 주신 부모님께 감사하고, 지칠 줄 모르는 기상을 키워준 모교 고려대학교에 감사하고, 항상 나에게 용기와 격려를 해주시는 모든 주변분들, 교우분들이 더욱 소중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교우님들을 폴란드로 초대합니다.

